

現代式安全面刀出現

— 執念과 頭腦의 結晶 —

요사이 電子를 비롯해서 우리 周邊에서 使用되고 있는 安全面刀는 19世紀末에 킹 지레트에 의해 考察되었다.

그는 發明家의 家庭에서 태어나기는 했으나 正規의 技術教育을 받지는 않았다. 行商할 때에 이미 발명에 눈을 뗐고 發明者인 윌리엄 페인터의 暗示로서 現代의이고 消費者가 쓰기 편리한 안전면도의 발명을 해냈다.

1895년의 어느날 아침에 수염을 깎다가 문득 着想하여 究極조각과 時計태엽에 쓰이는 鋼리본 그리고 손줄을 사서 안전면도를 만들었고 이어서 特許를 出願함으로써 1904년에 登錄되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만으로 商業化할 수가 없어서 銳利한 칼날을 만들기 위하여 硬하고 柔軟한 鋼板을 찾으려했고 또한 값이 싼 칼날을 製作하는 方法을 6년동안 골몰했으나 鋼專門家들은 協調는커녕 오히려 不可能하다는 생각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必要한 財政的支援을 얻을 길이 없어 困境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날 이같은 冒險에 投資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며 거간노릇을 하던 친구의 紹介로 만난 포스톤의 鑄鋼製造業者 헨리 잭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잭스가 主動이 되어 1901년에 야콥 하일본과 발명가인 윌리엄 니카슨이 5,000달러를 出資하여 드디어 美安全面刀會社를 設立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잭스와 하일본의 권유로 同業者인 니카슨이 機械的問題의 研究에 着手했고 니카슨은 그 分野에 經驗은 없었으나 資質이 있어 드디어는 블레드의 칼날과 安全支持器 사이의 正確한 調節을 위하여 무거운 면도의

손잡이를 제작해야 한다는 構想을 하였다.

1902년까지 니카슨은 칼날의 適當한 크기와 形狀 및 두께를 決定하였고 또한 鋼薄板의 火入法을 發見하여 드디어는 燒戻法을 完成하였다. 이어 칼날 캡과 안전지지기의 크기를 결정한 다음 工程中の 어느 鋼에 칼날을 붙이는 機械를 設計하여 實驗하는데에 成功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 회사는 債務가 累積되어 그들만으로는 회사를 支撐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레트는 옛친구인 조 J 조이스에게 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社長職을 내놓았으나 얼마후 다시 사장직을 되맡아 1910년까지 그 職位를 維持하였다. 그후 그는 캘리포니아로 移住하여 蓄財한 資本으로 果樹園을 經營하면서 世界의 經濟的 統一體라는 組織을 空想하는 등으로 歲月을 보냈다.

한편 니카슨은 엘리베이터의 보던넬립裝置는 물론이고 獨特한 地球製造工程도 발명한 사람이며 最初의 新製安全面刀는 1904년에 市販되었으나 그때까지 역시 회사의 財政狀態는 말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黑字經營으로 轉換된 것은 1906년이며 그후부터의 社勢發展은 驚異의이었다.

個人的 발명가들이 現代의安全面刀를 創造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며 따지자면 지레트의 創案과 原始的의 모델에다가 니카슨의 高度한 才能으로서 발명다운 고안이 되었고 또한 오늘의 안전면도가 出現하게 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共通點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특히 지레트는 그 분야에 전혀 知識이 없었음에도 執念만으로서 뜻한바를 끝까지 이룩하였다는 점이 높이 評價될 수가 있다.